

한국어 학습자들의 동사 시제상 습득 양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 진행형 “-고 있다”를 중심으로

루시언 브라운 · 연 재훈

(런던대 소아스; SOAS, University of London)

Lucien Brown · Jaehoon Yeon. Experimental Research into the Phases of Acquisition of Korean Tense-Aspect: Focusing on the Progressive Marker “-ko issta”. As part of a larger project into the acquisition of tense-aspect marking in Korean, this paper reports the findings of a piece of experimental research looking into “when” and “how” second language learners of Korean develop use of the progressive marker “ko issta”. The paper sets out to test the claims made by the aspect hypothesis (Shirai 1991, Andersen & Shirai 1996) regarding acquisition of progressive marking; namely that (1) progressive marking is acquired first on activity verbs and later on accomplishment and achievement verbs and that (2) learners do not commit “errors” of using progressive marking with state verbs. However, we acknowledge several problems in applying these claims to Korean: (1) since “-ko issta” can be more easily omitted with activity verbs than with other verb types, it appears questionable that progressive marking is acquired primarily with activity verbs in the case of Korean; (2) in contradiction to claims that learners do not “mis-use” progressive marking with state verbs, Korean “-ko issta” frequently occurs with a category of such verbs (cognitive/emotive) verbs in native speaker talk and (3) Korean verbs of wearing may operate both as accomplishment and as achievement verbs, resulting in dual readings when used with progressive marking.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cloze-style test sat by 40 learners of Korean (20 at elementary level and 20 at advanced level) and retrospective interviews. Analysis of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contrary to the claims of the aspect hypothesis, progressive marking in L2 Korean occurs first on accomplishment rather than activity verbs, (2) Korean L2 learners acquire progressive marking on cognitive-emotive verbs at a late stage and struggle to fully grasp the meaning even at advanced levels, (3) with verbs of wearing, learners acquire the “accomplishment” reading first and the “achievement” meaning later. We conclude the paper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by making concrete recommendations as to how teaching of this important point of tense-aspect can be improved.

주제어: 시제상 습득(acquisition of tense-aspect), 진행형(progressive marking), 진행상(progressive aspect), -고 있다 (-ko issta), 시상 가설 (aspect hypothesis), 문법상(grammatical aspect), 어휘상(lexical aspect)

1. 들어가기

이 논문¹⁾은 한국어 동사 시제상 습득 양상에 대한 실험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학습자들이 동사 진행형 “-고 있다”를 언제,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어 동사 진행형 “-고 있다”와 영어 “be ...ing”과 같은 유럽 언어의 진행형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째, “-고 있다”는 <진행>뿐 만 아니라 <상태 지속>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아래 예문 (1)에 나타난 것처럼, “-고 있다”가 “사랑하다”와 같은 감정·인지 동사 (“심리동사” - 정희자 (1994))와 결합되면 <상태 지속>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영어에서는 진행형이 주로 감정·인지 동사와 결합되지 않으며 “Minho is loving Yumi”와 같은 문장은 어색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예문 (2)처럼, “입다”와 같은 착용 동사와 결합되면 문맥에 따라 <상태 지속>의 의미와 <진행>의 의미로도 사용되며 영어로 번역하면 “is wearing”과 “is putting on” 으로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 | | | |
|-----|------------------|-----------------------------|
| (1) | 민호가 유미를 사랑하고 있어요 | */?Minho is loving Yumi.. |
| (2) | 유미가 원피스를 입고 있어요 | Yumi is wearing a dress. |
| | | Yumi is putting on a dress. |

둘째, 현재 벌어지고 있는 행동이나 동작을 표현할 때에 영어 “be ..ing”과는 달리 한국어 “-고 있다”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 (3)과 (4)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에 (3)의 현재 진행형 외에 (4)의 단순형도 또한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어에는 “Yumi studies now”와 같은 문장은 대부분의 문맥에서 비문으로 볼 수 있다:

- | | | |
|-----|-----------------|----------------------|
| (3) | 지금 유미가 공부하고 있어요 | Yumi is studying now |
| (4) | 지금 유미가 공부해요 | */?Yumi studies now. |

따라서 한국어 동사 진행형 습득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한국어 동사 진행형의 특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서, 시상 가설 (aspect hypothesis (Shirai 1991)) (뒤 2.1 참조)을 바탕으로 한국어 동사 진행형 습득 시점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살펴 볼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가) 한국어 학습자의 동사 진행형 습득은 시상 가설의 주장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는가?
- (나) 한국어 학습자의 동사 진행형 습득 과정에 있어서 감정·인지 동사와의 진행형 사용은 어느 시점부터 발전되는가?
- (다) 한국어 학습자의 동사 진행형 습득 과정에 있어서 “입다”, “신다”와 같은 착용동사는 두 가지 의미(<상태 지속>과 <진행>)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습득되는가?

1) 이 논문의 초고는 2009년 8월 8일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열린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 대회에서 발표되었다. 발표회장에서 좋은 질문과 도움 말씀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 이론적 배경

먼저, 본 연구를 뒷받침하는 시상가설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 그 이론을 한국어 학습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을 검토하겠다.

2.1. 시상 가설과 동사 분류

시상 가설은 문법상을 표시하는 형태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휘적 상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이다. 시상 가설에 따르면 시상을 표시하는 문법 형태 습득 순서는 동사의 어휘적 상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2.1.1 어휘상의 정의와 그에 따른 동사 분류

어휘상이란 문법상의 형태가 아닌 기본형 동사(또는 술어)가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시간적 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달리다’라는 동사를 보면, ‘달리다’라는 동사 자체가 진행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은 벤들러(Vendler 1957)에 의해 제안된 동사 분류와 비슷한 유형인데, 이것을 한국어 동사에 적용한 것이다. 한국어의 적용은 Yang (1994), Lee (2006)의 내용에 근거하며 동사 분류 기준은 Yang (1994), Kim & Lee (1996)를 참조하였다.

도표 1: 한국어 동사 분류

	동사 분류	정의/설명	예
1	상태동사 (state verbs)	변함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술어	1. 예쁘다, 높다, 붉다, 좋다, 정직하다, 차다; 2. 있다, 없다, 계시다; 3. -이다.
2	동작 동사 (activity verbs)	특정한 목표점 또는 종료점이 없는 진행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비완성적(atelic) 동사	달리다, 뛰다, 걷다, 말하다, 울다, 자다, 웃다, 부르다, 돌다, 흐르다,
3	완성 동사 (accomplishment verbs)	특정한 목표점 또는 종료점이 있는 진행적인 동작을 가리키는 완성적(telic) 동사	1. 찾다, 고치다 2. 편지를 쓰다, 라면 한 그릇을 먹다, 단어를 외우다 3. 죽이다, 입히다, 보이다
4	성취 동사 (achievement verbs)	절정적 또는 순간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완성적(telic) 동사	<u>절정(絶頂; climatic)적 성취</u> 죽다, 끝나다, 켜다, 끄다, 떠나다, 결혼하다, 시작하다, 식다 <u>기동(起動; inchoative)적 성취</u> 알다, 사랑하다, 믿다, 모르다, 좋아하다, 기억하다, 느끼다 [감정·인지 동사]

위 도표를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성취 동사(즉 절정(絶頂)적 성취동사와 기동(起動)적 성취동사)의 존재가 한국어 동사 분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2절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²⁾.

2.1.2 동사 습득 과정과 순서에 관한 주장

위와 같은 동사 분류를 토대로 한 시상 가설에서 제기되는 습득 과정과 순서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있다(Shirai 1991, Andersen & Shirai 1996). 그 주장의 요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다)와 (라)가 본 논문과 관련된 동사 진행형 습득에 관한 내용이다:

(가) 학습자들은 과거나 완료 표지를 성취동사 또는 완성동사에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동작동사 또는 상태동사에 사용한다.

(나) 완료상(perfective aspect)과 미완료상(imperfective aspect)이 분류되는 언어에서 학습자들은 완료적 과거를 먼저 습득하고 나중에 미완료적 과거를 습득하며, 여기에서 미완료상은 상태동사, 동작동사와의 결합형이 우선적으로 습득되고 나중에 비완성적 동사와의 결합이 습득된다.

(다) 진행상이 있는 언어에서, 진행 표지는 동작동사와 먼저 사용되고, 완성동사, 그리고 성취동사 순으로 사용된다.

(라) (적어도 L1 습득에 있어서) 진행상이 상태동사와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유아들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에 있어서 “예쁘고 있어”, “더럽고 있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어휘상이 문법상 사용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은 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즉 학습하는 언어를 아직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한 유아 또는 제2언어 학습자들이 문법상 형태를 사용할 때 어휘상이 비슷한 동사와의 사용이 가장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습득한다는 것이다. 위의 주장 (다)와 같이 진행상은 먼저 진행적인 특성을 가진 동작동사와의 사용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2.2. 시상 가설과 이와 관련한 한국어 진행형 습득의 차이점

위와 같은 시상가설의 주장과 한국어 진행형 습득을 세 가지 차이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습득 순서에서 한국어 진행형 습득과 시상 가설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2.1). 두 번째, 한국어 진행형인 “-고 있다”는 주로 상태 동사로 간주된 감정·인지 동사와의 사용이 허용되어 시상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2.2.2). 세 번째, “-고 있다”는 “입다”와 같은 착용동사와 결합될 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2.2.1 동작 동사와 완성 동사와의 습득 순서

시상 가설에 따르면 진행형 습득은 동작 동사가 우선순위로 사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앞의 예문 (3) ‘공부하고 있어요’ (4) ‘공부해요’의 예에서 본 것처럼, 한국어는 “-고 있다” 사용이 필수적이기보다는 선택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어와 같이 동사 진행형이 선택적인 언어는 시상 가설과 다른 습득 순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문 (5)와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동작 동사 “추다”의 “-고 있다” 형이 쓰인 ‘춌을 추고 있었어요’와 “-고 있다” 형이 쓰이지 않은 ‘춌을 추었어요’는 ‘춌

2) Smith(1991)는 ‘semelfactive’라고 하는 다섯 번째 부류를 나누기도 했는데, 이것은 ‘John is knocking on the door’처럼 성취동사가 진행형으로 사용되었을 때 반복의 의미를 갖는 부류를 가리킨다. 그러나 기존의 4가지 분류가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류이다 (Sugaya & Shirai 2007:4)

을 춘' 사실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진행형 동사 “-고 있다” 사용이 선택적인 동사의 경우, 춤을 춘 시점의 양상(시상)이 다를 뿐 ‘춤을 추다’라는 의미는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유미는 춤을 추고 있었어요.

(6) 유미는 춤을 추었어요.

이와는 달리 완성 동사는 다른 행태 특성을 보여준다. 완성동사와 동사 진행형 “-고 있다”가 결합될 때, 즉 “-고 있다” 사용이 필수적일 때는 “-고 있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의미 차이가 크다:

(7) 지갑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못 찾았어요.)

(8) 지갑을 찾았어요. (*그러나 결국 못 찾았어요.)

즉, 한국어의 경우 “-고 있다”의 사용은, 동작 동사보다 완성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비율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진행형 습득은 동작 동사가 우선 순위로 사용된다”라는 시상 가설 이론과 달리 한국어 경우 진행형 습득 과정에서 “-고 있다” 사용이 선택적인 동작 동사와의 결합보다는, “-고 있다” 사용이 필수적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은 완성 동사와의 결합이 우선적으로 습득될 가능성이 높다.

이 주장을 일부분 입증하고 있는 기존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즉, Kim & Lee (2006)에서 한국어 시상 습득 연구를 보면 초보자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고 있다”의 사용은 동작동사보다 완성동사와의 사용이 높았다. 하지만 그 학습자들의 전체 “-고 있다” 사용빈도는 10%에 그치므로 그 결과가 통계학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 2.3에서 이 연구의 주요 결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알아볼 것이다.

2.2.2 감정·인지 동사와의 사용

시상 가설에 따르면 “(적어도 L1 습득에 있어서) 진행상이 상태동사와 잘못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진행상은 주로 상태동사로 간주되는 감정·인지 동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며 사용 빈도율도 높다.³⁾ 다음은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발췌한 예문들이다.

(9) 전자레인지로 팝콘 튀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10)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인권에 대해 더 모르고 있어요

(11) 기대가 큰 만큼 잘 되시리라 믿고 있어요

(12) 키가 큰 수많은 남자들보다 전 현재 키 작은 남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13) 전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고 있어요

단,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Lee (2006)에 따르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사랑하다”, “믿다”, “알다”, 등은 상태동사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성취동사 - 즉, “기동(起動)적 성취동사”라고 분류한 점이다. Lee (2006)가 주장하는 바를 간략히 요약하면 “사랑하다”, “믿다”, “알다”, 등은 원래 변함이 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상태동사가 아니라, 순간적이고 완성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성취동사의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즉, ‘알다’와 같은 동사는 본질적으로 진행적인 <알고 있는> 상태가

3) 장미선(2005)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 있다”형과의 결합이 가장 높은 동사는 상태동사로 간주되는 “알다”이다.

아니라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기동(起動)적 성취동사를 “-고 있다”와 결합하면 <진행>을 표시하지 않고 <완료 후의 결과 상태>(예: 알게 되는 일이 생김으로써 발달되는 상태, 즉 <알고 있는 상태>)를 묘사한다.⁴⁾

“사랑하다”, “믿다”, “알다”, 등을 상태동사가 아닌 성취동사로 간주하고 시상 가설에 적용한다면 진행형 습득 순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것은 한국어의 특징적인 사용법이기 때문에 제2언어 습득에 있어서 모국어 전이(first language transfer)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2.2.3 착용 동사와의 사용

한국어에서 진행형 “-고 있다”가 착용동사 “입다”, “신다”, “매다” 등과 결합하면 <입고 있는 상태>와 <입고 있는 동작>과 같은 두 가지 뜻이 묘사된다. 이것은 시상 가설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다. 다음 예문 (성태수 2002)을 보자:

(14) 그 여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입고 있는 상태>)

(15) 그 아이는 혼자서 옷을 입고 있다 (<입고 있는 동작>)

Lee(2006)에 따르면 “입다”는 본질적으로 <입는 동작>의 의미를 가진 완성동사라고 한다. 그러나 <입는 동작>은 보는 입장에 따라 완성동사 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동성취동사의 특성도 지닐 수 있다. 즉, 옷을 입는 것은 완료점이 있는 진행적인 동작으로 보는 경우에는 완성동사의 특성을 지니고,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행형으로 쓰일 때에는 옷을 입고 있는 동작을 가리킨다. 그 반면에 새로운 상태를 일으키는 순간적인 일로 보는 경우에는 기동성취동사의 특성을 가지고 (14)와 같이, “-고 있다”와 결합하면 그 순간적인 동작이 생김으로써 발달되는 <완료 후의 결과 상태> (즉, 상태 지속 - 박주원 (2009: 45))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이 동사 하나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은 시상 가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완성동사와 기동성취동사 중 어느 용법이 우선적으로 학습자들에게 습득되는지 또한 언어 학습자들에게 의미 있는 연구 소재가 될 것이다.

2.3 한국어 “-고 있다” 습득의 기존연구

한국어 “-고 있다”⁵⁾와 시상 가설에 관한 기존의 주요 연구로는 설문조사와 말하기 자료를 사용한 Kim & Lee (2006)와 Lee & Kim (2007)이 있다. Kim & Lee (2006)에서는 “-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거형 “-었”의 습득 과정을 연구했고 “-고 있다”와 “-었”이 어느 종류의 동사들과 먼저 사용/발전되는지 그리고 “-고 있다”와 “-었” 중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습득되는지를 실험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 있다” 형은 다른 동사 시제보다 비교적 늦게 습득되며 “-고 있다”는

4) 본 연구는 Lee(1996)의 주장과 같은 입장이지만 기존 연구의 “사랑하다”, “믿다”, “알다”, 등의 어휘상 분류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다르다. 정희자(1994)는 “사랑하다”, “믿다”, “알다”, 등은 상태동사도 아니고, 성취동사도 아닌 “심리동사”로 달리 분류한다. 그리고 이와는 달리, 정언학(2006)과 박주원(2009)은 “사랑하다”, “믿다”, “알다” 등은 “-고 있다”와 결합되더라도 상태성이 강하므로 상태동사에 포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5) 한국어 ‘-고 있다’의 문법 의미에 대한 이론 내적인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자의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고 있다’의 학습/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이므로 ‘-고 있다’ 자체의 이론적인 검토는 다른 연구로 미룬다. ‘-고 있다’와 결합하여 ‘상태 지속’의 문법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의 시간 구조가 특이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우창현(200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진행>의 의미로 우선 습득된 후, <완료 후의 결과 상태>로 습득된다고 한다. 즉 “알고 있어요” 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와 같은 문장은 “공부하고 있어요” 또는 “찾고 있다”와 같은 문장보다 늦게 습득/발전된다는 것이다. Lee & Kim(2007)은 “-고 있다”와 “어 있다”의 습득을 연구했으며 이 연구에서도 또한 <진행>이 우선적으로 습득되고 <결과 상태>가 차후에 습득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Kim & Lee (2006), Lee & Kim (2007) 연구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Kim & Lee (2006), Lee & Kim (2007)에서는 “-고 있다”와 결합하여 <완료 후의 결과 상태> 의미가 나타나는 동사를 모두 한 부류로 다루고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어떠한 부류의 동사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동사 부류가 차후에 습득 되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알고 있다”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와 같은 문장을 한 부류로 묶어서 이 두 문장을 같은 시점에 습득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영어와 같이 감정·인지 동사와의 진행형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모국어를 가진 학습자들은 후자의 문장보다 전자의 문장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시간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는 감정·인지 동사를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두 번째 문제는 Kim & Lee (2006)에는 “입다”, “신다”와 같은 착용 동사를 <완료 후의 결과 상태> 의미로만 다루고 <진행>의 의미(즉, “그 아이는 혼자서 옷을 입고 있다”와 같은 문장)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착용동사는 문장 맥락에 따라 두 가지 시간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고 있다”가 <진행>, 아니면 <완료 후의 결과 상태> 중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분류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Lee & Kim (2007)에는 <완료 후의 결과 상태> 외에 <진행>의 사용법도 존재하지만 이 두 사용법의 습득 과정에 대한 직접 비교 분석은 찾아 볼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점은, 위 2.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m & Lee (2006)에 한국어 “-고 있다”의 습득 순서가 시상 가설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진행상이 동작동사보다 완성동사와 우선적으로 습득된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한국어 초급 수준이라 그런지 “-고 있다”의 사용빈도는 전체 기대치의 10%에 그쳤다. 따라서 10%에 해당하는 사용빈도를 바탕으로 “-고 있다”의 습득 순서를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보완하여 본 연구 과정에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의 한국어 과정을 마쳐 “-고 있다” 사용을 포함한 한국어 문법을 상당 수준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 문제점으로 Kim & Lee (2006), Lee & Kim (2007)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대부분 (96%; 79.3%) 교포 학습자라는 점이다. Lee & Kim (2007: 662)에 참여한 96명의 교포 참여자 중 45명이 한국어가 “모국어”라 대답하였지만 Kim & Lee (2006)에서는 어떤 언어가 모국어인지 명시되지 않았다. Lee & Kim (2007)는 모국어가 한국어라 하여도 한국어 실력은 초급 또는 중급 실력으로 간주하였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이 있다. 교포들은 성장 과정에서 쉽게 한국어에 노출됨으로써 한국어 시상 구조 또는 동사 분류에 대한 무의식적인 모국어 지식을 가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10대 중/후반 이후가 될 때까지 한국어를 접하지 못한 비한국계 학습자들과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는 교포를 제외한 100% 비한국계 학습자를 자료 수집 대상으로 삼았다.

3. 연구 방법

3.1 피험자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⁶⁾은 다음과 같다:

- (1) 초급 학습자 20명:
(런던대 SOAS 1학년 과정 수료자)
- (2) 고급 학습자 20명:
(런던대 SOAS 3/4학년 재학생 - 1년간 한국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학생들)

참여한 학습자들은 모두 영국에서 거주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학생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이 모국어가 영어이며 다음 도표 2에서 보듯이 다른 언어권 학습자도 포함되었다. 학습자들의 모국어 언어들은 진행형이 있는 언어이지만 불어, 독일어, 베트남어는 그렇지 않다.

도표 2: 피험자의 모국어

	모국어	초급	고급	합계
1	영어	13	16	29
2	불어	3	0	3
3	일본어	1	2	3
4	독일어	0	2	2
5	중국어	1	0	1
6	네덜란드어	1	0	1
7	베트남어	1	0	1
	합계	20	20	40

3.2 실험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들의 진행형 사용 실태와 자료를 수집하였다.

3.2.1 설문조사 디자인 원리

설문조사는 기존 진행형 습득 연구(Bardovi-Harlig & Reynolds 1995, Collins 2000, Kim & Lee 2006)에서 주로 사용해 오고 있는 클로즈 테스트(cloze test) 방식이다. 설문조사는 50 개의 문제로 구성되며 각 문제에서 주어진 동사를 활용하여 빈칸을 채우게 하였다:

- (예) A: 민수가 지금 집에 없어요?
B: 네, 지금 공원에서 (산책하-) _____
- (예) A: 민수가 그저께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B: 그런데 어제 집에서 (찾-) _____

3.2.2 설문조사 문제 분류

50개의 문제 중 30개는 “-고 있다”가 정답으로 유도된 문제였고, 나머지 20개는 동사 단순형을 사용해서 대답해야 하는 문제였다. 동사 단순형을 사용하는 20개의 질문을 삽입한 이유는 피험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교란형 문제’ (“distracter”)이다.

6) 피험자들은 모두 ‘-고 있다’에 대해서 학습한 학생들이었다.

다음은 “-고 있다”가 정답으로 유도된 30 개 질문의 동사 분류이다:

동작동사:	5 문제
완성 동사:	5 문제
절정적 성취 동사:	5 문제
기동적 성취 동사:	5 문제
입다, 신다, 등(완료 후의 결과 상태):	5 문제
입다, 신다, 등(진행):	5 문제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동일한 설문지를 가지고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모의실험(pilot test)을 실시했을 때, “-고 있다”라는 답이 기대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고 있다”로 대답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어에서 “-고 있다”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특성 때문이다. 이런 특징을 고려하여 모국어 화자들이 75% 이상 “-고 있다” 형을 사용한 질문들만 선택하여 실험 설문지의 질문 문장으로 사용했다.

참고로, “-고 있다”가 정답으로 유도된 문제에는 대부분 “-고 있다” 외에 “-는 중이다”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설문 분석 결과 “-는 중이다”는 최소 빈도(<1%)를 보였다. 따라서 이 최소 빈도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어미 사용”에 포함시켰다.

3.2.2 직접 인터뷰

설문 조사 실시 후에, 초급과 고급 각 2명의 학습자와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때 중점을 두었던 질문의 내용이다:

- 1) 피험자와 모국어 화자의 사용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진행형 “-고 있다”와 단순형 사용에 대한 인식
- 2) 한국어 진행형 “-고 있다”와 영어의 “be ...ing” (또는 학습자의 모국어에서 사용되는 진행형)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 3) 한국어 진행형의 감정·인지 동사와의 결합, 착용 동사와의 결합, 결합 사용이 선택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

인터뷰 언어는 영어이고 FORUS 디지털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하였다.

4. 연구 결과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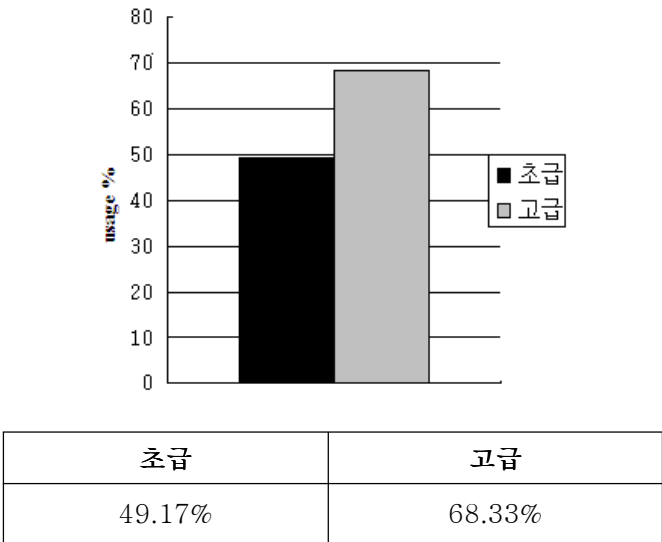
연구 결과와 분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 (4.1) “-고 있다”의 사용 빈도
- (4.2) 동사 부류에 따른 “-고 있다”의 사용 빈도
- (4.3) 시상 가설의 습득 순서와 유사점·차이점
- (4.4) 기동적 성취동사와의 “-고 있다” 사용
- (4.5) 착용 동사와의 ‘-고 있다’ 사용

4.1 “-고 있다”의 사용 빈도

“-고 있다”의 종합 사용 빈도를 도표 3에서 보면 고급 피험자의 경우 모국어 사용자의 빈도인 75%에 비해 약 7% 낮은 68%이며 초급 피험자의 경우는 49%로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초급, 고급 피험자 간의 빈도 차이는 학습자들이 고급 단계로 올라가면서 “-고 있다”사용을 원어민 사용빈도에 가깝게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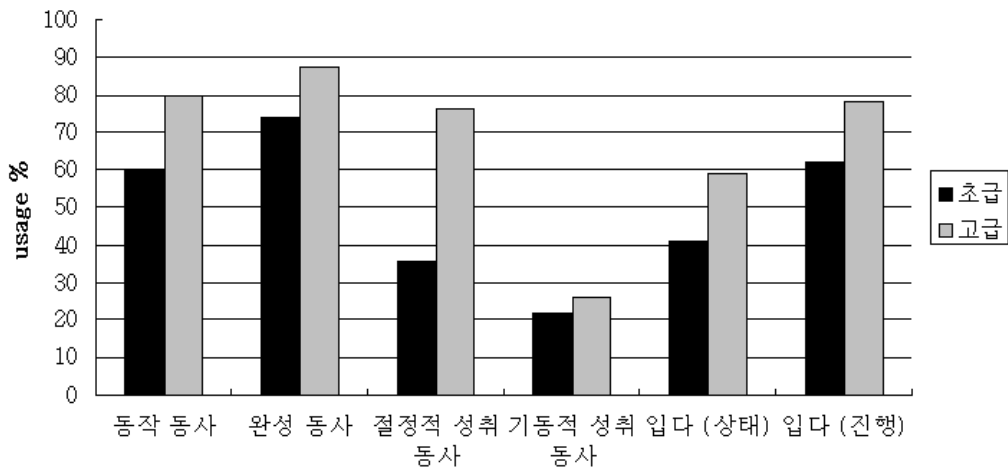
도표 3: “-고 있다” 사용빈도



4.2 동사 분류에 따른 “-고 있다”의 사용 빈도

고급 피험자의 경우 대부분의 동사에서 진행형 사용 빈도가 모국어 화자 빈도율(75%)에 가깝지만 기동적 성취동사(26%)와 상태 지속의 의미로 사용된 착용동사(59%)의 경우에 모국어 화자의 75%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초급 학습자 역시 기동적 성취 동사 빈도는 22%로 사용 빈도가 매우 낮았고 절정적 성취 동사 또한 36%에 그쳤다.

도표4: 동사 종류에 따른 진행형 “-고 있다” 결합 사용 빈도



	초급	고급
동작 동사	60 %	80 %
완성 동사	74 %	87 %
절정적 성취 동사	36 %	76 %
기동적 성취 동사	22 %	26 %
착용동사 (상태 지속)	41 %	59 %
착용동사 (진행)	62 %	83 %

4.3. 시상 가설의 습득 순서와 유사점·차이점

우리의 실험 결과는 시상 가설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차이를 보이는 점도 있다.

먼저 유사점을 살펴보면, 한국어 동사와 “-고 있다”와의 결합 습득은 절정적 성취동사보다 동작동사/완성동사와의 사용이 먼저 습득된다는 것이다. 동작동사/완성동사의 경우를 보면 초급 피험자도 60%에 해당하는 높은 빈도율을 보이지만 절정적 성취동사의 경우는 초급 피험자 36%, 고급 피험자 76%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상 가설과의 차이점은 동작동사와의 사용이 완성동사와의 사용보다 늦게 습득되는 것이다. 초급 피험자의 경우 동작동사와의 습득은 60%, 완성동사와의 습득은 74%로 완성동사와의 습득율이 14%나 높았다는 결과를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작동사와의 결합 습득이 우선적이지 않은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는 진행형 사용이 선택적인 언어라는 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4. 기동적 성취동사와의 ‘-고 있다’ 사용

“-고 있다”와 기동적 성취 동사(즉, “알다”, “사랑하다”, “믿다”와 같은 감정적·인지적 동사)와의 결합 사용은 매우 늦거나 아예 습득되지 않는 학습자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학습자의 경우 그 사용 빈도는 22%에 불과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고 있다”와 감정·인지 동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다음 직접 인터뷰 내용에서 보듯이 Graham이라는 초급 학습자는 영어로 “I am loving”와 같은 문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도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인터뷰 내용 1

I didn't know that. In my mind all the verbs to do with thinking and emotions I wouldn't have put it. Because I just translated direct from English and you wouldn't say "I am loving. (Graham, 영국, 22 세)

고급 학습자의 경우는 그 사용법을 알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고 있다” 형은 활동적인 동작이나 임시적인 현상을 묘사하는 형식으로 생각하여 감정·인지 동사와의 결합 사용이 자연스럽게 옳다고 말하는 학습자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Tim이라는 학습자는 “사랑하고 있어요”와 같은 문장은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사랑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문장으로 이해한다고 하였다 (인터뷰 내용 2). 그러한 분

석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학습자들은 <상태 지속>의 의미 (즉, “사랑하고 있어요”와 같은 문장은 사랑하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인터뷰 내용 2

If I said to someone "사랑하고 있어요" it would mean like 지금 사랑하고 있지만 but maybe in the future probably not. It seems to express temporariness or emphasises the fact that you didn't love me before.
(Tim, 22 세)

또한, Tim은 “기억하다”와 같은 동사와의 “-고 있다”의 사용은 어색하게 느낀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기억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기억하는 것이 “active”하게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했다 (인터뷰 내용 3). 여기서도 고급 수준까지 학습한 사람들이 “-고 있다”가 상태 지속을 표시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⁷⁾.

인터뷰 내용 3

I guess for me, it is just the way I think as a cognitive thing. It seems that 기억하고 있어요 is not located in terms of whether I did before and I don't in the future. Because if I put it as 하고 있어요 it sounds like I'm trying to actively remember it. (Tim, 22 세)

4.5. 착용 동사와 “-고 있다”의 사용

“입다”, “신다”와 같은 착용 동사와 “-고 있다”가 결합 될 때는 “진행” 사용으로 우선 습득되고 차후에 “완료 후의 결과 상태” 사용으로 습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초급 학습자들의 경우 “진행”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고 “입다”, “신다” 동사의 “완료 후의 결과 상태”가 정답으로 유도되는 문제에서 “-아/어 있다”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하거나 단순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6) *앞에 있는 남자가 치마를 입어 있어요.

(17) *앞에 있는 남자가 하이힐을 신어 있거든요.

이런 오류 또한 “-고 있다”가 “완료 후의 결과 상태”를 묘사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초급 학습자 Graham은 “고 있다”는 active한 과정을 표지하기 때문에 입고 있는 상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뷰 내용 4

"신고 있어요" would be in the process of doing that, in the action of

7) 아니면 상태 지속의 용법을 배우고 나서도 모국어의 간섭 때문에 제대로 습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doing that. Putting on. For wearing, because it is lasting for a long time and more passive, I would use -아 있다. The -고 있다 form would make it more active." (Graham, 22 살)

5. 결론: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진행형 “-고 있다”의 특징을 고려하여 시사 가설을 바탕으로 한국어 동사 진행형 습득 시점과 특징을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은 “-고 있다”의 사용을 다른 동사시제 표현보다 비교적 늦게 습득하며 특히 이들은 고급단계로 한국어 수준이 올라가더라도 <완료 후의 결과 상태>로서의 “-고 있다”의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고 있다” 사용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효과적인 “-고 있다” 교육 방법이 있을지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는 교재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동사와 “-고 있다” 결합 사용이 제시 되어야 한다. 다음 도표 5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3개 대학 교재의 “-고 있다” 제시 상황을 분석한 표이다. 대부분의 경우 “-고 있다” 형은 동작동사와의 결합으로만 제시되며 절정적 성취 동사, 착용 동사와의 결합은 극히 드물고, 기동적 성취 동사와의 사용은 조사한 세 교재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국어 학습자들이 “-고 있다”의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동사와의 결합 사용에 노출되게 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표 5: 동사 분류에 따라 교재에 나타나는 ‘-고 있다’ 제시 빈도
(‘-고 있다’형이 제시되는 과에만)

	이화	서강	연세	합계
동작 동사	15	19	14	48
완성 동사	6	3	1	10
절정적 성취	0	0	2	2
기동적 성취	0	0	0	0
착용동사(상태)	0	8	0	8
착용동사(진행)	0	0 ⁸⁾	1	1
합계	21	30	18	69

두 번째 제안은 “-고 있다” 학습 시 한국어의 몇 가지 진행형 특징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 빠른 이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모국어와 비교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속도감 있는 응용 성취감으로 학습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진행형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한국어에서는 영어의 “be …ing”과 같은 형태와는 달리 “-고 있다” 사용이 선택적이라는 것, <진행> 뿐만 아니라 <상태 지속>의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 있다. 그리고 “-고 있다”와 “-어 있다”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⁹⁾. 본 연구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학습자들한테는 “-어 있다”가 “-고 있다”보다 덜 “active”한 형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입어 있어요”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8) 서강대 쓰기 교재에서는 착용동사가 진행의 의미로 제시된 예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9)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교재에서 실제로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를 수업 모델 형태로 제시하면 교사들에게 더 유익하겠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는 다른 연구로 미룬다.

사실상 “-어 있다”는 동사와 결합 시 “-고 있다”와의 결합보다 많은 제약이 따를 뿐이지 의미의 강약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어 있다”는 종결성을 지닌 자동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다 (박주원 2009: 44).

한국어 진행형 “-고 있다” 습득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학습자 각자의 모국어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제안한다. 이는 “-고 있다”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분석 고려한 본 연구를 보다 깊이 있게 보충할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언어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하나로서, 일본어 습득을 검토한 Sugaya & Shirai (2007)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참여자 모국어의 진행형 존재 여부에 따라, 또는 그 모국어의 진행형이 학습 언어와 얼마만큼 비슷한 특성을 갖는지에 따라 그 습득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 있다”의 습득 연구에 있어서 한국어와 비슷한 특징을 지닌 진행형이 있는 모국어(예; <상태 지속>의 의미로 활용하는 진행형이 있는 일본어)를 가진 화자, 진행형이 존재하지만 한국어와 특성이 다른 모국어(예; 영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가진 화자, 진행형이 존재하지 않는 모국어(예;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를 가진 화자를 분류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고 있다”에 대한 연구에는 습득 순서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교육 방법을 검토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한국어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동사와 “-고 있다”의 결합에 노출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한국어 진행형의 특징에 관한 보충 설명을 모국어의 특성과 비교하여 진행하는 것 등을 교육 방안으로 제안했는데, 이런 방안을 토대로 얼마만큼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비슷한 진행형 사용을 학습자들이 습득/발전시킬 수 있는지 실험, 연구, 입증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주원(2009), “상적 보조동사의 문법상 기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종선 외, 국어의 시제, 상, 서법, 서울: 박문사.
- 성태수(2002), “한국어와 영어의 진행형 비교”, STEM 3/1, 77-94쪽.
- 양용준(2002), “영어와 한국어의 상 표지 비교”, 언어과학연구 22, 141-158쪽.
- 우창현(2003), “문장 차원에서의 상 해석과 상 해석 규칙” 국어학 41, 225-247.
- 장미선(2005), “한국어의 시제,상 형식의 교수 개선 방안 - 「한다」 형과 「하고 있다」 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16/3, 305-330쪽.
- 정언학(2006),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서울: 태학사.
- 정희자(1994), “시제와 상의 화용상 선택조건”, 예산학보(예산학회) 15.
- Andersen, R. & Y. Shirai(1996), “The primacy of aspect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C. Ritchie and T. K. Bhatia 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ardovi-Harlig, K. & D. Reynolds(1995). “The role of lexical aspect in the acquisition of tense and aspect”, *TESOL Quarterly* 29: 107-131쪽.
- Collins, L.(2001), “The roles of L1 influence and lexical aspect in the acquisition of temporal morphology”, *Language Learning* 52, 43-94쪽.
- Kim, H. & E. Lee(2006), “The Development of Tense and Aspect Morphology in L2 Korean”, in J. Song ed, *Frontiers of Korean Language Acquisition*, London: Saffron Books 91-126쪽.
- Lee, E(2006), “Stative progressives in Korean and English”, *Journal of Pragmatics* 38, 695-717쪽.
- Lee, E. & H. Kim(2007), “On Crosslinguistic Variations in Imperfective Aspect: The Case of L2 Korean,

- Language Learning 77:4, 651-685쪽.
- Shirai, Y.(1991), "Primacy of aspect in language acquisition: Simplified input and prototyp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박사학위논문.
- Smith, C. S.(1991), The parameter of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 Sugaya, N. & Y. Shirai(2007). The Acquisition of Progressives and Resultative Meanings of the Imperfective Aspect Marker by L2 Learners of Japanes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29/1: 1-38.
- Vendler, Z.(1957), "Verbs and Times",. The Philosophical Review 66, 143-60쪽.
- Yang, B.(1994), *Morphosyntactic Phenomena of Korean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Psych-verb constructions, Inflectional verb morphemes, Complex sentences, and Relative clauses*, Seoul: Hankuk Publishers.

루시언 브라운
런던대 소아스 한국학 연구소 전임 연구원
SOAS, University of London
Thornhaugh Street, Russell Square
London WC1H 0XG
전화번호: +44-(0)20-7898-4601
전자우편: lb39@soas.ac.uk

연재훈
런던대 소아스 한국학과 교수, 한국학 연구소 소장
SOAS, University of London
Thornhaugh Street, Russell Square
London WC1H 0XG
전화번호:+44-(0)20-7898-4232
전자우편: jy1@soas.ac.uk